

# 해와 달과 지구의 조화는 우연인가?

여인갑 (주)시스코프/대표이사

**해** 와 달 그리고 지구의 조화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각각의 크기와 더불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거리에 대한 자료이다.

해는 지름이 864,000마일로 달의 지름 2,160마일의 400배이고 지구는 지름이 7,920마일이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평균거리는 9천3백만 마일이며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235,000마일이다.

달이 지구둘레를 돌고 있는데 그 궤적은 달을 720개 늘어놓은 것과 같은데 720이란 숫자는 해와 달 그리고 지구 크기의 최대공약수인 것이다.

$$720 \times 12 = 8,640(00) \text{ 해의 지름}$$

$$720 \times 11 = 7,920 \text{ 지구의 지름}$$

$$720 \times 3 = 2,160 \text{ 달의 지름}$$

3,168이란 숫자

한편 달과 지구의 크기를 비교하면  $7,920 / 2,160 =$

3.6666…이 된다. 이 비율을 태양의 크기에 적용해 보자. 아마도 무슨 중요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8,640 \times 3.6666 = 31,680$ . 그러면 31,680이란 수치는 무엇일까? 이 숫자와 지구의 지름인 7,920과 비교해 보면 답을 알 수 있다. 4배인 것이다. 이는 지구를 둘러쌓는 정사각형을 그리면 그 사각형의 주변길이가 되는 것이다.

이번에는 달을 둘러쌓는 정사각형을 그려보자. 그러면 이 사각형의 주변길이는 8,640이 되는데 이는 태양 지름의 백분의 일인 것이다. 그런데 이 8,640이란 수치를 예전 영국에서 거석(巨石)건축물을 쌓을 때 사용하던 고대의 길이 단위로 표시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얻는다. 지금은 MMi(megalithic mile)로 표시하는 이 길이는 14,400피트로 2.72727272마일이 되는데 달을 둘러쌓는 정사각형의 주변 길이는 3,168MMi가 된다.

이러한 고대 영국에서 사용하던 길이 단위와 오늘날 사용하는 마일과의 우주철학적인 관계는 해와 달 그리고 지구가 잘 조화된 설계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의 지름 :	7,920 마일
달의 지름 :	792 MMi
지구를 둘러쌓는 정사각형의 둘레 :	31,680 마일
달을 둘러쌓는 정사각형의 둘레 :	3,168 MMi
해의 지름 :	316,800(00) MMi

고대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5세기에 말 한 바와 같이 수는 우주의 언어인 것이다. 숫자는 특별한 언어인데 이는 아무리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여도 그 뜻을 전혀 상실하지 않는 아주 정밀한 언어인 것이다.

### 27은 우주창조의 기본 수

태양을 다시 한번 쳐다 보자. 태양의 밝은 빛이 빛나는 장면이 또 있다. 해의 지름인 3,168,000MM를 피트로 계산해 보면 0을 모두 잘라버린 후 값이 456,192피트(3,168 x 144)가 된다.

여기서 얻은 456,192의 모든 자릿수 값을 다 곱해 보자  
 $4 \times 5 \times 6 \times 1 \times 9 \times 2 = 2,160$

2,160이란 수치는 지금까지 많이 본 수치이다. 즉 달의 지름인 것이다.

이번에는 456,192의 모든 자릿수 값을 다 더해 보자.

$$4 + 5 + 6 + 1 + 9 + 2 = 27$$

이 27이란 숫자는 바로 우주창조의 기본이 되는 수이다.

456,192피트를 인치로 계산해 보면 다시 한번 27이란 수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56,192 \times 12 = 5,474,304$$

모든 자릿수를 다 더해 보자.

$$5 + 4 + 7 + 4 + 3 + 0 + 4 = 27$$

히브리 글자가 원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27을 거꾸로 읽어보면 72가 된다. 이 72는 위에서 해와 달 그리고 지구의 지름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인 720을 연상시켜 주지 않는가? 놀랄만한 결과인 것이다.

27에 720을 붙여 만든 숫자 027720은 앞으로 읽으나 뒤로 읽으나 값이 같은 회문 숫자로 1부터 12까지의 수로 모두 나누어지는 최초의 수인 것이다. 즉 1부터 12까지의 수들의 최소공배수가 027720인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은 해와 달 그리고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충분한 증거와 확신이 된다. 우주는 설계된 숫자에 의해 정밀하게 창조된 것이 틀림없다.